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의 관계

조 남 근 양 돈 규*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충청북도 제천시의 6개 초·중·고교의 남녀학생 476명이었다. 사회적 지지 지각척도, 인터넷 중독척도 및 인터넷관련 비행에 관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원별 지지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은 형제(자매)지지의 수준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및 친구지지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인터넷관련 비행의 수준은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및 선생님지지 등 세 지지원들의 지지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형제(자매)지지 및 친구의 지지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들이 갖는 시사점 및 제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I. 서 론

오늘날 컴퓨터 및 인터넷은 기술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급속히 발전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류의 문명사를

정보화시대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및 인터넷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출현은 인류의 의식과 생활 전반을 변혁시키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

* ydk9498@hanmail.net

의 활동양식, 생활문화, 사고방식 및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환경으로서도 기존의 대중매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조영승, 1999). 반면에,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하여 방종과 일탈에 따른 사회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현대 정보통신의 활용능력 및 활용도 면에서 가장 앞서는 세대로서, 이에 더하여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특성과 함께 컴퓨터 및 인터넷 등을 포함한 정보매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발달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청소년층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몰입 및 중독, 음란물 접촉 및 음란성 채팅,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컴퓨터 및 인터넷과 관련된 비행과 범죄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donga.com, 1999. 12. 8; 2000. 10. 4; 2000. 10. 11; 양돈규, 2000; chosun.com, 2000, 12. 16; 천정웅, 2000; hankooki.com, 2000. 12. 10; 2000. 12. 12). 보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이 인터넷의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의 죽여달라는 요구에 따라 돈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hankooki.com, 2000. 12. 16), 심지어는 폭탄을 제조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경향신문, 2000. 12. 18). 또한 최근의 엄격한 법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들의 원조교제가 향후 급속한 에이즈 감염 및 발병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컴퓨터 및 인터넷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최근의 심각한 청소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인터넷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행동들 가운데서도, 특히 청소년들의 가치관, 의

식구조 및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쳐 생활 전반에서 큰 변화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현상 및 인터넷과 관련된 비행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이 생활 적응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회적 지지(社會的 支持)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며, 나아가 사회적 지지의 유형별 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날의 컴퓨터 및 인터넷활용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 사회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활동과 조직운영, 정부의 역할과 기능, 다양한 즐거움 제공과 건강, 그리고 학습의 개념, 목적과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활의 매우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를 변화시키고 있다(Dertouzos, 1997). 컴퓨터와 인터넷 속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라 하는데, 이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망과 컴퓨터의 발달로 탄생된 시간 및 공간이 융합된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성, 이데올로기, 청소년 등에 대한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문화적인 복합지대라고 할 수 있다(천정웅, 2000).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여가활동과 오락, 인간관계 및 교제, 그리고 상대방과의 대화와 토론 등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적당하고 충분한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본다면, 매우 흥미롭고 다양한 세계를 제공해주는 사이버공간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활동과 놀이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청소년들의 가치관, 의식구조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컴퓨터매체의 기술적 발전이 핵심적인 동인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및 교육 등 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간접적인 영향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컴퓨터매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 활용 과정에서 받게 되는 영향과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정 및 학교 등에서의 변화에 따라 받게 되는 영향을 들 수 있다(조영승, 1999). 이처럼 컴퓨터 및 인터넷이 만드는 사이버세계가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컴퓨터 및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는 현상과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 즉 인터넷 중독 및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비행 및 기타의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사이버공간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최근의 청소년들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컴퓨터 및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로부터 제공되는 흥미롭고 다양한 강화적인 특성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이버공간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매체인 인터넷(the Internet)은 196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개발되어 전세계로 보급된 컴퓨터들간의 정보를 연결해주는 통신망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정보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발명품의 하나로 각광 받으면서 다양한 정보통신활동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많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양돈규, 2000). 반면에, 그로 인한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인터넷과 관련된 활동 자체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중독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적응 및 가정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독(addiction)은 '특정한 기호, 습관 또는 행동에 빠지거나 자신을 내맡기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이인혜, 1999), 이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

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기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특정 물질에 의존하는 물질중독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행위나 활동에 의존하는 과정중독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중독에는 니코틴(담배) 중독, 알콜중독 그리고 다양한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적인 약물들에 대한 중독(약물중독)이 있다. 행위중독이라고도 하는 과정중독에는 도박중독, 성(섹스)중독, 일중독, 운동중독, 쇼핑중독, 주식투자중독 및 TV중독 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 사이버공간의 발달과 확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게임에 대한 중독(게임중독)과 게임을 포함한 컴퓨터 및 인터넷 활동 자체에 대한 중독(즉, 컴퓨터 중독 혹은 인터넷 중독) 등도 과정중독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여러 형태의 중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중독된 행위를 통해 기분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며, 또한 그 결과로 당사자들의 건전한 정상생활이 상당히 방해받게 된다는 점이다(양돈규, 2000). 이에 더하여, 중독은 어떤 대상을 탐닉하는 수준을 넘어 의존성, 내성 및 금단증상의 발현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증상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며 만성화되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직업활동 등에서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민오, 2000).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이란, 인터넷 사용(혹은 활동)에 탐닉되어 이에 대한 의존성, 내성 및 금단증상 등과 같은 병리적인 증상을 보이는 중독상태를 말한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정상생활이 방해받는 중독상태에 빠지는 않지만, 다른 과정중독과 같이 인터넷에 대해서도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왔다(Young, 1996). 실제로 일부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기대를 넘어서 인터넷에 몰입하고, 나아가 중독상태인 인터넷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를 겪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avis, Smith, Rodrigue, & Pulvers, 1999). 최근 미국에서는 인터넷 중독(특히, 음란사이트에 대한 중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경향신문, 2000. 5.

8), 이러한 추세는 우리 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적절한 문화공간 및 문화활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즉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풍부한 정보와 다양한 오락 및 볼거리들이 큰 강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고, 나아가 청소년기 동안에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 및 과업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중독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많은 일선 교사들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다수가 학교 등교를 전후하여 PC방을 찾으며, 하루 동안의 게임시간을 합칠 경우 3-5시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많은 학교들에서 학급당 5-1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하루 5시간 이상씩 게임에 몰두하는 등 중·고생들의 약 10%내외가 인터넷 중독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donga.com, 1999, 12. 8).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국의 초·중·고교생 1,9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약 1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지표'에서 중독증세를 나타냈으며, 전체의 29.1%가 '인터넷 때문에 숙제나 학과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42.8%는 '밤새 인터넷을 하느라 잠을 못 잔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또한 32.7%는 '남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인터넷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donga.com, 2000. 10. 4). 더욱이 컴퓨터 및 인터넷이 현대인의 생활에서 더욱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생활의 큰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인터넷에 몰두하거나 중독상태에 빠지게 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력이 많을수록 인터넷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김주노, 2000), 저학년의 청소년들에 비해 고학년의 청소년들에게서 인터넷 중독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양돈규, 2000). 또한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

향의 차이에서는, 대학생들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모두에서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주노, 2000; 양돈규, 2000). 한편, 인터넷에 보다 더 중독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견해(Griffiths, 1996) 및 개인의 성격요인이 인터넷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Pratarelli, Browne, & Johson, 1999).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의 특징으로는 인터넷 사용경력에 비해 인터넷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들이며,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Young, 1996). 최근의 연구에서도, 충동성은 인터넷 몰입(송원영, 1999; 윤재희, 1999) 및 인터넷 중독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김주노, 2000; 라민오, 2000), 또한 감각추구성향이 인터넷 중독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양돈규, 2000).

한편, 인터넷 중독은 당사자들의 심리적, 사회적 및 직업과 학업생활 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인터넷 중독자들은 가족간의 대화 및 대인간의 접촉 감소(Young, 1996), 그리고 그로 인한 고독감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자들은 높은 우울수준을 보이며(Young, 1997), 사회공포증, 폭식증, 충동통제장애 및 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onga.com, 1998. 6. 1). 또한, 인터넷 중독은 학생들의 학업소홀, 성적 저하 및 높은 결석률과 관련이 있고(Young, 1996), 성인의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업무능률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사용은 중독수준이 아니라 일주일에 단 몇 시간만을 이용하더라도 우울증과 고독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donga.com, 1998. 8. 31), 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만큼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나 접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용에 따른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사회공동체의 붕괴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donga.com, 2000. 3. 23).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 및 견해들은 현대인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해 가고 있는 인터넷이 단지 많은 편의와 이점을 제공하는 도구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또 다른 측면은 그러한 중독상태를 벗어나기(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다. 즉, 인터넷 사용 및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려 하는 경우에는 알콜이나 마약류에 중독된 물질중독자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금단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의 상태가 대인관계의 감소, 고독감 및 우울수준의 증가, 사회공포증, 폭식증, 충동통제장애 및 약물중독 등의 정신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과 함께 업무능력의 감소와 학생들의 학업소홀, 성적 저하 및 높은 결석률 등과 관련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터넷은 최근 들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비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이란, 사회적, 법률적, 도덕적,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년에 의해 행해지는 위반행동 혹은 그릇된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청소년들이 행하는 음주, 흡연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문제행동(지위비행으로 치칭되기도 함)에서부터 강도, 강간 및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행동(혹은 범죄적 비행으로 표현하기도 함)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와 범위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양돈규, 2000).

컴퓨터 및 인터넷을 통해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은 현대인들에게 현실의 생활에서는 불가능한 새롭고 많은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해 주고, 실시간

에 전세계의 어느 곳과도 빠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불거리와 오락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양한 문제들과 후유증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성(性)과 관련된 음란물이나 마약 등의 불법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사이트 등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정보들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이버공간상에서, 그리고 사이버공간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많은 청소년비행 및 범죄가 새로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즉,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공간은 범죄 및 범죄기술의 유포에 매우 효과적인 매체로 이용될 수 있으며(Mann & Sutton, 1998), 실제로 이를 이용한 음란물과 같은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소프트웨어의 유통, 통신사기, 자료조작,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등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경향신문, 2000. 5. 12). 또한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우려를 낳고 있는 마약사용 및 중독과 관련하여, 많은 마약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중앙일보, 2000, 10. 2). 이와 같은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폐해는 청소년들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비례하여 인터넷과 관련된 비행을 행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찰청, 2000). 이처럼 인터넷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행동 및 비행으로는,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몰입 및 중독 이외에도, 음란물 접촉 및 음란성 채팅, 학교생활 부적응, 채팅을 통한 즉흥적인 성관계(번섹)와 그 결과로 초래되는 원치 않는 임신, 원조교제,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컴퓨터 및 인터넷과 관련된 비행과 범죄들이 포함된다(donga.com, 1999. 12. 8; 2000. 10. 4; 2000. 10. 11; 양돈규, 2000; chosun.com, 2000, 12. 16; 천정웅, 2000; hankooki.com, 12. 10; 2000. 12. 12). 인터넷관련 비행(Internet-related delinquency)이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비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형태의 '인터넷 비행'과 인터넷 활동을 통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형태의 비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비행으로는 인터넷상의 음란물 접촉, 음란성 채팅,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인터넷 도박 및 사기, 그리고 불법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이용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인터넷 몰입 혹은 중독과 관련된 학교 무단결석 및 조퇴, 무단 이탈, 채팅을 통한 즉흥적인 성관계(변색) 및 원조 교제, 그리고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거래(마약, 음란물 등의 판매 및 구매행동)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살 및 청부자살, 그리고 살인 등과 같은 비행도 또한 심각한 문제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과 관련된 비행이 매우 많은 청소년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한 가지 예를 들면, 흔히 성인들에게서나 있음직한 음란채팅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교생 1,9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8.1%가 음란채팅을 경험한 것으로 대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1.8%,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8.2%로 나타났고, 학제별로는 초등학교생의 비율이 1.5%, 중학생의 비율이 29.2%, 그리고 고교생의 비율이 6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donga.com, 2000. 10. 11).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들의 음란채팅행동이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매우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음란채팅을 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최근 각종 매체의 보도 및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보이는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행동 및 비행은 음란채팅의 수준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심각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및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컴퓨터 및 인터넷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그로부터 제공되는 흥미롭고 다양한 강화적인 요인들,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적절하고 충분한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과 기회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공간을 통해 개개인들은 타인과의 직접적인 대면상황(對面狀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제약하는 연령, 성별, 지위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정체를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익명적인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천정웅, 2000), 이러한 기회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개개인들에게 많은 자유로움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그와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태는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을 하기 쉽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며, 나아가 다양한 문제행동 및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개인적 및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도덕성,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 자아정체감, 자기통제수준, 충동성 및 감각추구성향 등이 알려지고 있으며(양돈규, 2000), 이러한 변인들 가운데 충동성(라민오, 2000), 감각추구성향(양돈규, 2000) 및 인터넷 중독경향(라민오, 2000; 양돈규, 2000) 등은 컴퓨터 및 인터넷관련 비행(혹은 사이버비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의 수준은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양돈규, 2000). 한편, 대부분의 인터넷관련 비행의 유형에서 저학년 청소년들에 비해 고학년 청소년들에서, 그리고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남자 청소년들에서 더 높은 발생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일반적인 비행 추세(문화관광부, 1998; 1999; 문화체육부, 1997)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새로

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문제행동 및 비행이 심각한 경향을 나타냄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의 문제나 인터넷관련 비행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연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들과 함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탐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라며, 특히 부모, 친구 그리고 가까운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양돈규, 임영식, 1998). 이처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가족, 친구 및 동료 등과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Cohen & Hoberman, 1983),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생활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기능 및 구조적 측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조남근, 양돈규, 2000). Thoits(1982)는 사회적 지지를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존경 및 애정 등의 정서적 지지, 정보 및 지식 등의 인지적 지지,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재화 및 용역 등의 실질적 지지(tangible support)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자들에 따라서는 사회적 지지를 애정, 존경 및 감정이입 등과 관련된 정서적 지지, 물질적 및 경제적인 지원이 따르는 물질적 지지,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적 지지, 그리고 개인에 대한 평가 및 개인행동에 대한 피드백과 관련된 평가적 지지, 현실생활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는 형태의 실제적 지지, 그리고 사회화 과정 혹은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형태의 지지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여러 유형의 사회적 지지 가운데서 정서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서적 지지(情緒的 支持: emotional support)란, 정서적 측면에서 개인의 적응 및 건강에 도움이 되는 타인으로부터의 지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관심, 배려, 애정, 존경 및 감정이입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 및 효과 면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양돈규, 1997; 이민규, 김완석, 1999; 지선근, 한종철, 1999).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이은주, 1998; Dubow & Tisak, 1989), 청소년기의 음주, 흡연 및 기타 다양한 비행을 포함하는 외현적인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양돈규, 1997; 이은주, 1998; Barnes & Farrell, 1992; Barnes & Windle, 1987; Elliott, Huizing, & Ageton, 1985).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 사이의 집단괴롭힘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남근, 양돈규, 2000). 즉,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적게 할뿐만 아니라, 집단괴롭힘의 피해도 적게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지지는 약물사용 및 거식증과 같은 섭식장애 등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Schmidt, 1996), 나아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은 적게 받는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 및 정서적 장애와 같은 내현적인 문제가 적고(양돈규, 1997; Varni, Rubenfeld, Talbot, & Setoguchi, 1989), 긍정적인 자아개념 및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elner, Ginter & Primavera, 1982).

한편,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개인이 처한 상황 및 지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 효과가 미치는 영역(심리적 적응 혹은 신체적

건강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즉, 경제적 불황기의 실직자들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박영신, 김의철, 2000)에 따르면, 실직자들에 대한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약간 효과적이라는 반응과 매우 효과적이라는 반응이 주로 나타난 반면에,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약간 효과적이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일부의 실직자들은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남근과 양돈규의 연구(2000)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들(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 교사 및 친구 등)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개인이 처한 상황 및 지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그 효과가 미치는 영역(심리적 적응 혹은 신체적 건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고민의 주요 요인으로는 주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많은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변화와 학업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발달과업을 들 수 있다. 흔히 청소년들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 및 발달과업들에 대처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나아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때에는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인 문제나 약물사용, 가출 및 폭력 등의 외현적인 행동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양돈규, 2000). 특히, 최근 인터넷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행동과 비행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그로부터 제공되는 흥미롭고 다양한 강화적인 요인들,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및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과 기회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서 비롯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경향과 다양한 비행의 문제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소년문제 및 비행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 발생적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들을 찾아서 줄이거나 제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러한 문제들의 발생과 관련하여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인들을 찾아 이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들의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온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현적 및 외현적인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청소년기의 다양한 비행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및 인터넷관련 비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과 관련된 비행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밝히고, 나아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별 지지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 및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 가설 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 1-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 1-2.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별 지지

수준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이다.

- 1-3. 사회적 지지원들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지지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은 낮을 것이다.
- 2-2.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은 낮을 것이다.
- 2-3.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들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4.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들에 따라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청소년 집단은 충청북도 제천시의 초등학교 2개교(6학년 156명; 남 82명, 여 74명), 중학교 2개교(3학년 166명; 남 77명, 여 89명) 및 고등학교 2개교(2학년 154명; 남 71명, 여 83명)의 학생 476명(남학생 230, 여학생 246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초등학생 12.3세, 중학생 14.9세, 및 고등학생 16.7세 등이었다.

2. 측정도구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사회적지지 지각척도, 인터넷 중독검사척도 및 인터넷과 관련된 비행을 알아보는 질문지 등 모두 3가지였다.

1) 사회적 지지 지각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 지각척도'는 양돈규(1997)가 사용했던 것으로, 모두 34개 문항이며, 정서적 지지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 전체 34개 문항을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친구 지지'에 관한 문항 8개, '교사 지지'에 관한 문항 8개, '아버지 지지'를 묻는 문항 6개, '어머니 지지'에 관한 문항 6개, 그리고 '형제(자매) 지지'에 관한 문항 6개 등이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5점)'에 평정하도록 구성된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각 문항별 점수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이며, 전체 문항의 총점은 최저 34점에서 최고 170점까지이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6로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2) 인터넷 중독척도

인터넷중독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김주노의 연구(2000)에서 사용한 것으로, 이 척도는 K. S. Young의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검사척도를 기초로 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해 일부의 문항을 보완한 것이다. 전체 20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식 척도로, 총점은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7로 매우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3) 인터넷관련 비행 질문지

인터넷관련 비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양돈규(2000)가 사용했던 것으로, 최근에 인터넷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비행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전체 10문항(문항의 내용: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귀가시간 위반 및 수업불참, 음란물 사이트 접속, 채팅을 통한 번개(즉석메팅) 및 원조교제, 인터넷상에서의 타인에 대한

욕설, 인터넷 도박, 인터넷상에서의 음란한 대화,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거짓말하기, 그리고 성인 인터넷 방송 시청 등)이며, 예(1점), 아니오(2점)로 응답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8로 매우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3. 조사방법 및 자료분석

자료조사는 초·중·고교(전체 12개 학급)에서 학급의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자들은 진행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진행요령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준비된 질문지를 배포한 후 자기보고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분석, t-검증 및 일원변량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III. 결 과

1. 사회적 지지(전체 및 지원원별 지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의 관계

먼저,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 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 중독경향과의 관계($r=-.150$, $p<.001$), 및 인터넷관련 비행과의 관계($r=-.169$, $p<.001$)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1'을 지지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지지원(支持源)별 사회적 지지들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지원원별 모든 사회적 지지들(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형제 혹은 자매 지지, 교사 지지 및 친구 지지)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설 1-2'를 지지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주요 지원원들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흔히 예상하는 것처럼,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간의 관계($r=.499$, $p<.00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어머니 지지와 형제(자매) 지지간의 관계($r=.469$, $p<.001$)였다. 반면에, 아버지 및 어머니 지지와 선생님 지지간의 관계 및 선생님 지지와 친구 지지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특히 아버지 지지와 선생님 지지간의 관계($r=.157$, $p<.001$)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1. 사회적 지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의 상관

	사회적 지지 (전체)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형제 (자매) 지지	선생님 지지	친구 지지	인터넷 중독경향	인터넷 관련비행
사회적지지(전체)		.679**	.734**	.708**	.558**	.651**	-.150**	-.169**
아버지 지지			.499**	.361**	.157**	.274**	-.110*	-.135**
어머니 지지				.469**	.173**	.361**	-.107*	-.144**
형제(자매) 지지					.192**	.316**	-.153**	-.069
선생님 지지						.197**	-.044	-.156**
친구 지지							-.059	-.064
인터넷 중독 경향								.261**
인터넷 관련 비행								

* $p<.05$ ** $p<.001$

표 2. 학년에 따른 사회적 지지(전체 및 지지원별 지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평균 및 표준편차	초등학교(6학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2학년)
사회적지지(전체)	평균	3.61	3.30	3.47
	표준편차	.59	.51	.54
아버지지지	평균	4.08	3.61	3.79
	표준편차	.84	.93	.89
어머니지지	평균	4.18	3.87	4.15
	표준편차	.85	.87	.76
형제(자매)지지	평균	3.48	3.32	3.70
	표준편차	1.04	1.00	.97
선생님지지	평균	3.00	2.57	2.44
	표준편차	.76	.79	.86
친구지지	평균	3.46	3.52	3.66
	표준편차	.72	.65	.67
인터넷 중독경향	평균	1.79	1.91	1.91
	표준편차	.63	.75	.68
인터넷관련 비행	평균	1.12	1.20	1.23
	표준편차	.16	.17	.19

사회적 지원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향을 나타낼 지를 알아본 결과, 인터넷 중독경향은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및 형제(자매)지지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에, 인터넷 중독경향과 선생님지지 및 친구지지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관련 비행은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및 선생님지지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에, 인터넷관련 비행과 형제(자매)지지 및 친구지지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지지는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원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설 1-3'을

지지한다.

2. 사회적 지지수준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의 차이

먼저, 사회적 지지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학년집단별 사회적 지지(전체 및 지지원별 지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을 사회적 지지수준에 따라 상위 25%집단과 하위 25%집단으로 구분한 후, 이 두 집단간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에서의 차이를 분

표 3. 사회적 지지(전체) 수준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의 차이

구 분	사회적지지 수준	사례수	인터넷 중독경향 수준	t
			평균(표준편차)	
사회적지지(전체)	상위집단(25%)	94	1.71(.60)	2.99*
	하위집단(25%)	87	2.02(.76)	

* p<.05

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은 사회적 지지수준의 상위 25%집단에 비해 하위 25%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9, p<.05).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설 2-1'을 지지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수준에 따라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을 사회적 지지수준에 따라 상위 25%집단과 하위 25%집단으로 구분한 후, 이 두 집단간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은 사회적 지지수준의 상위 25%집단에 비해 하위 25%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22, p<.05).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관련 비행을 범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설 2-2'를 지지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원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을 사회적 지지원별 지지수준에 따라 상위 25%집단과 하위 25%집단으로 구분한 후, 이 두 집단간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은 형제(자매)지지의 수준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다른 사회적 지지원들의 지지수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은 형제(자매)지지에서만 지지수준의 상위 25%집단에 비해 하위 25%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5, p<.05). 이러한 결과는 형제(자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반면에, 다른 사회적 지지원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경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원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표 4. 사회적 지지(전체) 수준에 따른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의 차이

구 분	사회적지지 수준	사례수	인터넷관련 비행 수준	t
			평균(표준편차)	
사회적지지(전체)	상위집단(25%)	102	1.15(.17)	3.22*
	하위집단(25%)	93	1.23(.19)	

* p<.05

<표 5> 사회적 지지원별 지지수준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수준의 차이

사회적 지지원	사회적지지 수준	사례수	인터넷 중독경향 수준	t
			평균(표준편차)	
아버지지지	상위집단(25%)	120	1.74(.60)	1.59
	하위집단(25%)	109	1.88(.73)	
어머니지지	상위집단(25%)	120	1.81(.67)	1.81
	하위집단(25%)	110	1.98(.79)	
형제(자매)지지	상위집단(25%)	109	1.80(.71)	2.05*
	하위집단(25%)	91	2.02(.77)	
선생님지지	상위집단(25%)	104	1.86(.68)	.50
	하위집단(25%)	109	1.91(.74)	
친구지지	상위집단(25%)	106	2.02(.77)	-1.21
	하위집단(25%)	116	1.89(.72)	

*p<.05

예상한 '가설 2-3'을 지지한다.

한편, 사회적 지원에 따라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을 사회적 지지원별 지지수준

에 따라 상위 25%집단과 하위 25%집단으로 구분한 후, 이 두 집단간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관련 비행

표 6. 사회적 지지원별 지지수준에 따른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의 차이

사회적 지지원	사회적지지 수준	사례수	인터넷관련 비행 수준	t
			평균(표준편차)	
아버지지지	상위집단(25%)	133	1.17(.17)	2.33*
	하위집단(25%)	118	1.23(.19)	
어머니지지	상위집단(25%)	129	1.17(.16)	2.58*
	하위집단(25%)	121	1.23(.19)	
형제(자매)지지	상위집단(25%)	117	1.19(.20)	1.49
	하위집단(25%)	101	1.22(.17)	
선생님지지	상위집단(25%)	112	1.15(.16)	2.47*
	하위집단(25%)	118	1.20(.18)	
친구지지	상위집단(25%)	115	1.20(.18)	-.98
	하위집단(25%)	127	1.18(.19)	

*p<.05

수준은 아버지지지($t=2.33, p<.05$), 어머니지지($t=2.58, p<.05$), 및 선생님지지($t=2.47, p<.05$) 등 세 지지원들의 지지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형제(자매)지지 및 친구지지 등의 지지원들의 지지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은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및 선생님지지 등의 지지원들에서 그 지지수준의 상위 25%집단에 비해 하위 25%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어머니 및 선생님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관련 비행을 범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반면에, 형제(자매) 및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원들은 청소년의 인터넷관련 비행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들에 따라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가설 2-4'를 지지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들어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과 관련된 비행과 청소년들의 생활 적응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나아가 사회적 지지의 유형별 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과 관련된 비행 발생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가설에 따라, 분석된 결과 및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생활적응과정에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온 사회적 지지(社會的 支持)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고('가설 1-1'), 이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 중독경향과의 관계 및 인터넷관련 비행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이 사회적 및 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온 사회적 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지지원들로부터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들인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형제(자매)지지, 선생님지지 및 친구지지 등의 지지원들에 따른 지지수준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가설 1-2'). 이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결과, 지지원(支持源)들(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형제<자매>지지, 교사지지 및 친구지지)의 지지수준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주요 지지원들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아버지지지와 어머니지지간의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어머니지지와 형제(자매)지지간의 관계였다. 반면에, 아버지 및 어머니지지와 선생님지지간의 관계 및 선생님지지와 친구지지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특히 아버지지지와 선생님지지간의 관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원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낼 것이라는 예상('가설 1-3')과 같이, 인터넷 중독경향은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및 형제(자매)지지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에, 인터넷 중독경향과 선생님지지 및 친구지지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인터넷관련 비행은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및 선생님지지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에, 인터넷관련 비행과 형제(자매)지지 및 친구지지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지지는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원들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들(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 교사 및 친구 등)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박영신, 김의철, 2000; 양돈규, 2000)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은 낮을 것이라는 예상('가설 2-1')과 같이, 사회적 지지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은 사회적 지지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가설2-3'에 대한 검증에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지지원들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에서의 차이를 알아본 분석에서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은 형제(자매)지지의 수준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사회적 지지원들의 지지수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설 2-3'의 분석결과는 '가설 2-1'의 분석에서 사회적 지지(전체)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지지(전체)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경향이 낮게 나타난 결과가 전체적인 사회적 지지(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친구 및 형제<자매>지지를 말함)의 효과라기 보다는 형제(자매)지지에 의한 효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가설 2-2')과 같이, 사회적 지지수준에 따라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은 사회적 지지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관련 비행을 범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에서 네 번째 및 다섯 번째로 제시된 결과는,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과 관련된 비행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가 아동, 청소년 및 성인들의 다양한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해 온 선행연구들(양돈규, 1997; 이민규, 김완석, 1999; 이은주, 1998; 조남근, 양돈규, 2000; 지선근, 한종철, 1999; Barnes & Windle, 1987; Barnes & Farrell, 1992; Dubow & Tisak, 1989; Elliott, Huizing, & Ageton, 1985; Felner, Ginter & Primavera, 1982; Schmidt, 1996; Varni, Rubenfeld, Talbot, & Setoguchi, 1989)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부분에서 논의될 '가설 2-3' 및 '가설 2-4'의 분석결과를 보면,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지원들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원들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가설 2-3')과 같이, 사회적 지지원들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은 형제(자매)지지의 수준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사회적 지지원들(아버지, 어머니, 선

생님 및 친구)의 지지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인터넷 중독경향의 수준은 형제(자매)지지에서만 지지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지지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형제(자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반면에, 다른 사회적 지지원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경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들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박영신, 김의철, 2000; 양동규, 2000)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형제(자매)지지를 제외한 다른 사회적 지지원들(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및 친구)이 인터넷 중독경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즉 커다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사회에 인터넷이 등장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로서, 그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 및 미래 사회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을 강조해 왔고, 이에 따라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을 중요한 생존능력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적극 권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많은 아동들 및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 및 노력을 투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 것이 인터넷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이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인터넷 사용(혹은 활동)에 탐닉되어 병리적인 증상을 보이는 중독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매우 다양한 강화적인 측면들 및 인터넷 활용능력을 중요시해 온 시대적 및 사회적인 요구, 그리고 부모들의 관심, 기대 및 격려는 최근

청소년층에서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관심과 격려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가,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너무 열심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경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사회 및 미래사회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이 차지하게 될 비중, 가치 및 중요성과 함께 적절한 활용의 범위 및 그 방안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한편, 다섯 가지의 사회적 지지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형제(자매)지지가 인터넷 중독경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형제(자매)의 지지(관심, 격려 및 함께 어울리는 것 등을 포함)가 인터넷을 대신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인터넷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는 인터넷 중독경향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설 2-3'의 검증 결과는 '가설 2-1'의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적 지지(전체)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전체)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경향이 낮게 나타난 결과가 전체적인 사회적 지지(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친구 및 형제<자매>지지를 말함)의 효과라기보다는 형제(자매)지지에 의한 효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 경향의 예방과 관련하여 형제(자매)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곱 번째, 사회적 지지원들에 따라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가설 2-4')과 같이, 사회적 지지원들에 따라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은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및 선생님지지 등 세 지지원들의 지지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형제(자매)지지 및 친구지지 등의 지지원들의 지지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은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및 선생님지지 등의 지지원들에서 그 지지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지지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어머니 및 선생님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과 관련된 비행을 범할 가능성 낮아지는 반면에, 형제(자매) 및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원들은 청소년의 인터넷관련 비행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들(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 교사 및 친구 등)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박영신, 김의철, 2000; 양돈규, 2000)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인터넷관련 비행의 문항이 전체 10개(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귀가시간 위반 및 수업불참, 음란물 사이트 접속, 채팅을 통한 번개(즉석미팅) 및 원조교제, 인터넷상에서의 타인에 대한 욕설, 인터넷 도박, 인터넷상에서의 음란한 대화,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거짓말하기, 그리고 성인 인터넷 방송 시청 등)였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비행(문항)에 대한 지지원별 지지의 효과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관련 비행 각각에 대한 사회적 지지원별 지지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및 선생님지지 등 세 지지원들의 지지수준에 따라서 인터넷관련 비행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형제(자매)지지 및 친구지지 등의 지지원들의 지지수준에 따라서 인터넷관련 비행의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인터넷관련성과는 관계없이 기존의 청소년비행을 측정했던 연구(양돈규, 1997)에서 나타난 결과, 즉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 및 선생님지지 등 세 지지원들의 지지수준에 따라서 비행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형제(자매)지지 및 친구지지 등의 지지원들의 지지수

준에 따라서 비행 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사회적 지지원들에 따른 지지 효과의 차이가 최근에 와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관련 비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반적인 청소년 비행 및 인터넷관련 비행 모두에서 주요 사회적 지지원들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및 교사의 지지가 비행감소와 관련된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반면에, 형제 및 친구지지에서는 비행 감소와 관련된 긍정적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행친구의 유·무에 따라 친구지지가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지를 알아본 연구(양돈규, 1997) 결과를 보면, 비행친구가 없는 청소년들은 친구지지 수준에 따라 비행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비행친구가 있는 청소년들은 친구지지수준에 따라 비행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비행에 대한 친구지지의 효과가 비행친구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결과가 인터넷관련 비행에서도 나타나지기를 확인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형제(자매) 지지수준에 따라 인터넷관련 비행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신체의 건강을 위해 질병 발생 후에 치료하기보다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듯이,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노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의 예방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점에 관해서는 최근에 오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컴퓨터 중독의 문제와 인터넷 관련 비행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컴퓨터 중독의 문제 및 인터넷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비행의 문제는 최근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그 발생 현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기초적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정보화가 더욱 더 진행되어 갈 것이고 이에 비례하여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고려한다면,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제들(즉, 컴퓨터·인터넷 중독 및 다양한 인터넷관련 비행의 문제 등) 또한 증가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터넷·컴퓨터 중독 및 인터넷관련 비행의 문제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의 발생 현황, 경향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적, 교육적 및 사회적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와 함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양돈규, 2000).

본 연구는 그 동안 긍정적인 사회적 및 심리적 변인으로 알려져 온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s)가 최근에 오면서 심각성을 더 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일부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우리 나라의 모든 학년 및 연령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참고문헌

경찰청(2000). **경찰백서**.

경향신문(2000. 5. 8). 美 '음란사이트' 중독 확산.

_____ (2000. 5. 12). '사이버 범죄' 부쩍 늘었다.

_____ (2000. 12. 18). 마약, 자살, 폭탄제조 등 무차별 유포, '반인륜 사이트' 사회가 병든다'.

김주노(2000). **인터넷 사용시간관 대인관계 및 심**

리변화.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검찰청(1998). **범죄분석**.

donga.com(1998. 6. 1). '인터넷 중독, 정신질환 유발 가능성'.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199806010181>.

_____ (1998. 8. 31). NYT '인터넷이 우울증 부른다'.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199808310242>.

_____ (1999. 11. 8). '인터넷도 금단현상 나타난다'.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199911080235>.

_____ (1999. 12. 8). '중고생 10% '인터넷 중독''.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199912080154>.

_____ (2000. 3. 23). '미 스탠퍼드대 연구소 '인터넷, 인간관계 단절 심화''.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003230059>.

_____ (2000. 10. 4). '청소년 11% 인터넷 중독 증세...메일 이용률 가장 많아'.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010040234>.

_____ (2000. 10. 11). '청소년 5명중 1명꼴 음란 채팅 경험'.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010110166>.

라민오(2000). **충동성, 인터넷 중독 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1999). **청소년백서**.

문화체육부(1997). **청소년백서**.

박영신, 김의철(2000). 경제불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85-117.

송원영(1999).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돈규(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중독 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 양돈규, 임영식(1998).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55-74.
- 윤재희(1999).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규, 김완석(1999). 실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94-109.
- 이은주(1998).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9(2), 115-137.
- 이인혜(1999). 현대인의 정신건강. *대왕사*.
- 조남근, 양돈규(2000).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집단괴롭힘 가해 및 피해수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안암교육학연구*, 6(2), 111-140.
- 조영승(1999). 청소년환경으로서의 컴퓨터매체와 청소년의 인간형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6(2), 41-83.
- chosun.com(2000, 12. 16). 고교 2년생 630만명 개인 정보 해킹.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12/200012160018.html>.
- 중앙일보(2000. 10. 2.). 넘쳐나는 마약(上).
- 지선근, 한종철(1999). 부모의 지지 및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 *대학생활연구(세종대)*, 8, 69-91.
- 천정웅(2000).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2), 97-116.
- hankooki.com(2000. 12. 10). 여자친구 원조교제 대금 요구 10대피살. <http://search.hankooki.com/search/search.api?원조교제;all;http://www.hankooki.com/nation/200012/h200012090929091451294.htm>
- _____ (2000. 12. 12). 주부가 고교생과 원조교제. http://search.hankooki.com/search/search.api?*.*;all;http://www.hankooki.com/hk/200012/h2000121219520310511469.htm
- _____ (2000. 12. 16). 자살사이트 청부살인. http://search.hankooki.com/search/search.api?*.*;all;http://www.hankooki.com/hk/200012/h2000121600505110511941.htm
- Barnes, G. & Farrell, M.(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763-776.
- Barnes, G. & Windle, M.(1987). Family factors in adolescent alcohol and drug abuse.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Health*, 14, 13-18.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Davis, S. F., Smith, B. G., Rodrigue, K., & Pulvers, K.(1999). An examination of Internet usage on two college campuses. *College Student Journal*, 33(2), 257-260.
- Dertouzos, M. L.(1997). *What will be: How the New World of Information Will Change Our Lives*, San Francisco: Harperedge.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and Socia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Elliott, D., Huizinga, D., & Ageton, S.(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CA: Sage.
- Felner, R., Ginter, M., & Primavera, J.(1982). Primary prevention during school transition: Social

- support and environment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277-290.
- Griffiths, M.(1996). Gambling on the Internet: A brief note.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2(4), 471-437.
- Mann, D. & Sutton, M.(1998). NetCrime: More change in the organization of thieving.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8(2), 201-229.
- Pratarelli, M. E., Browne, B. L., & Johson, K.(1999). The bits and bytes of computer/Internet addiction: A factor analytic approach.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1(2), 305-314.
- Schmidt, S. B.(1996). *Adolescent Bulimic Behavior and Its Relation to Adolescent Development, Coping,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Berkeley/Alameda.
- Thoits, P. A.(1982).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Epidemiolog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341-362.
- Varni, J. W., Rubenfeld, L. A., Talbot, D., & Setoguchi, Y.(1989). Determinants of Self-Esteem in Children with Congenital/Acquired Limb Deficiencies.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10(1), 13-16.
- Young, K. S.(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 899-902.
- Young, K. S.(1997). *What makes the Internet addictive: Potential explanations for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ference of the APA, August 15, Chiacgo, IL.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Adolescents' Social Supports,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nd Internet-related Delinquency

Nam-Keun Cho Don-Kyou Yang

Se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Adolescents' Social Supports,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nd Internet-related Delinquency. Subjec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476 students who are attending the sixth grade of two elementary schools, the third grade of two middle schools, and the second grade of two high schools in Checheon. They were asked to rate the questionnaires concerning Perceived Social Supports,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nd Internet-related Delinquency. Statistical procedures were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negative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erceived Adolescents' Social Supports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nd between Perceived Adolescents' Social Supports and Internet-related Delinquency. (2) The levels of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endency were different according to levels of social support from brothers(sisters), but were not different according to levels of social support from father, mother, teachers, and friends. (3) The levels of Adolescents' Internet-related Delinquency were different according to levels of social support from father, mother, and teachers, but were not different according to levels of social support from brothers(sisters) and friend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proposed.